
- 2018년 복구의회 -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2018. 11.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1
---------------	---

II. 연수내용	6
----------------	---

III. 시 사 점

1. 선진 복지 실현 기반 조성	19
2. 강동권 해양관광복합문화도시 개발	21
3.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환경 보호	22

IV. 개인별 보고서

1. 북구의회 의장 이주언	23
2. 북구의회 부의장 백현조	28
3. 북구의회 의원 임채오	30
4. 북구의회 의원 박상복	35
5. 북구의회 의원 이정민	37
6. 북구의회 의원 이진복	39
7. 의회사무과 6급 송진한	43
8. 의회사무과 6급 황영지	46
9. 의회사무과 7급 이가영	48
10. 의회사무과 7급 박현배	50
11. 의회사무과 8급 김이원	52

1. 목 적

- 호주, 뉴질랜드의 선진시설 및 우수 정책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접목방안 강구
- 새로운 제도와 시책 개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의원의 견문을 넓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 및 방안 모색

2. 참여자 현황

○ 구성원

- 의 원 : 6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담당업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장	이주언	남	연수총괄
	부의장	백현조	남	일정조정
	의 원	임채오	남	방문지 확인
	의 원	박상복	남	방문지 자료수집
	의 원	이정민	여	방문지 자료수집
	의 원	이진복	여	방문지 자료수집

- 직 원 : 5명

부서	직렬	직급	성명	성별	담당업무
의회사무과	행정	6급	송진한	남	연수팀장
	행정	6급	황영지	여	방문지 자료수집
	행정	7급	이가영	여	총무, 일정조정
	운전	7급	박헌배	남	방문지 자료수집
	통신	8급	김이원	남	사진촬영

3. 연수기간 : 2018. 10. 30. ~ 11. 6. (6박8일)

4. 방문국가 : 호주, 뉴질랜드

- 호 주 : 호주한인복지회, 원센트럴 파크,
시드니올림픽파크, 블랙타운 시의회,
호주국립해양박물관, 동부해안지역
- 뉴질랜드 : 로토루아 시청, 로토루아 노인복지시설,
로토루아 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5. 공식 방문기관

- 호 주 : 호주한인복지회, 시드니올림픽파크,
블랙타운 시의회
- 뉴질랜드 : 로토루아 시청, 로토루아 양로원

6. 세부 일정

일 시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세부 일정	비 고
1일 10/30 (화)	울 산 부 산 인 천	전용차량 KE1408 KE121	12:30 14:00 16:15 17:20 19:15	울산 집결 후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동 부산 김해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부산출발 / 인천향발 인천 도착후 환승 인천 출발 / 시드니 향발	
2일 10/31 (수)	시드니	전용차량	06:15 10:00	시드니공항 도착, 시드니 출발 ▶ 【공식방문】 호주 한인복지 문화센터 - 호주 한인 복지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한인 교민들의 사회 정착 지원 및 복지 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 ▶ 「호주 국립 해양박물관」 방문 - 호주의 해양산업, 국방, 탐험, 서핑, 해산물 등 바다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별로 전시	
3일 11/1 (목)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 【공식방문】 블랙타운 시의회 - 시드니 외곽에 위치하여 꾸준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블랙타운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다방면의 서비스 제공 ▶ 원센트럴파크 견학 -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젝트의 하나로 계획 건립된 친환경 건축물로 2013년 개관 이후 호주의 자연친화적 랜드마크 시설	
4일 11/2 (금)	시드니	전용차량	전일	▶ 【공식방문】 「시드니 올림픽 파크」 - 태양광 발전, 물 정화 및 순환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주거지역 개발 기여 ▶ 동부해안지역 「왓슨스베이」 현장시찰 - 1860년대 개발이 시작되어 식당, 카페, 숙박시설 및 해안 산책로가 마련되었고 해안관광 개발 현장 시찰	
5일 11/3 (토)	시드니 오클랜드	비행기	10:00 17:30	시드니 출발 / 오클랜드 도착	
6일 11/4 (일)	로토루아	전용차량	전일	▶ 【공식방문】 로토루아 노인복지시설 - 복지시설 보호관리 및 의료지원 현황, 복지정책 시찰 ▶ 로토루아 「폐수처리장」 견학 - 로토루아 지역 폐수를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폐수 정화 시설	
7일 11/5 (월)	로토루아	전용차량	전일	▶ 【공식방문】 로토루아 시청 - 뉴질랜드에서 인구가 4번째로 큰 도시로 관광도시로서 유지하기위한 도시 관리 정책 및 환경보존 정책 시찰 ▶ 로토루아 「쓰레기처리장」 견학 - 시청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센터로 폐기물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처리 시설	
8일 11/6 (화)	오클랜드 인천 부산		10:05 19:35 20:40	오클랜드 출발 / 인천 향발 인천 출발 / 부산 향발 부산 도착후 울산으로 이동	

7. 연수국가 및 방문지역현황

【호주(Australia)】

○ 국가개요

- 수 도 : 캔버라(Canberra)
- 면 적 : 7,741,220km²
(한반도의 약 35배)
- 인 구 : 24,772,000명
- 민 족 : 영국계(77%), 유럽계(21%),
아시아계(21%), 원주민(2%)



-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본토와 태즈메이니아 섬,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다. 호주는 해안을 접해서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로 인구가 390만명이고 멜버른 인구 320만, 브리즈번 인구160만, 캔버라 31만이다.
- 연방정부 밑에 6개의 주정부로 구성되어있고 주역할은 학교, 병원, 도로, 대중교통, 농업, 치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 밑에 지방 정부가 존재한다.
- 시드니(Sydney)
 -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 주의 주도인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 호주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시드니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보다 더 국제적인 도시로 받돋움 했다.
 - 시드니는 35개의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역할로는 도시 계획 및 지역계획, 환경 관리, 폐기물 관리, 지방 도로, 배수, 공원 및 휴양 시설, 도서관 등이 있다.

【뉴질랜드(New Zealand)】

○ 국가개요

- 수 도 : 웰링턴(Wellington)
- 면 적 : 268,680km²(한반도의 약 1.2배)
- 인 구 : 4,750,000명
- 민 족 : 앵글로색슨계(90.3%),
마오리인(9.7%)



○ 뉴질랜드는 10세기경 폴리네시아 문화를 계승한 마오리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됐으며, 유럽인으로는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최초로 발견했다. 1769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탐험하며 많은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 뉴질랜드는 영국연방국가로 국가원수는 엘리자베스여왕이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며 3년마다 총선을 실시한다.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뉴질랜드 주요도시 인구는 오클랜드 153만, 크라이스트처치 38만, 웰링턴 45만이다.

○ 로토루아(Rotorua)

- 로토루아는 북섬의 중심으로 북부 화산지대에 있는 도시이며 로토루아 호수와 타라웨라 산을 끼고 발달한 도시이다.
- 인구 6만여명의 도시로 뉴질랜드에서 11번째 규모이며 지리적 특성상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낙농업이다.

1. 공식 방문

【 호주 한인 복지회 】

○ 뉴사우스웨일즈주 한인들에 의해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주 목적은 호주 사회에서 한인 지위향상, 한인 커뮤니티 공동 이익 추구 등이다. 설립초기부터 호주한인복지회는 한인 신규이민자들의 호주 이민정착을 돕는데 주력하였으며, 현재는 그 서비스가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한 데이케어 서비스, 취학전 아동교육, 방과후의 특별학습지도, 복지 문화센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한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 주요질의답변

- 호주한인복지회 단체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 1979년도에 시작하여 교민 선각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3년도 처음으로 호주 정부에서 펀드를 지원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호주한인복지회의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 한인 이민정착 서비스, 미취학 한국아동 취학 준비교육,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대상자 취업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등 한인들의 호주 사회 정착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 호주한인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1983년부터 호주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나 최근 호주정부에서 한인들이 호주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한인회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한인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 외국인 정착에 대한 호주 사회 분위기나 시각은 어떠한지?

☞ 호주는 2백개국 이상 다양한 국적이 모여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다. 호주 정부에서는 기술 이민 등을 적극 장려하여 왔으며 현재는 워낙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기 때문에 인종 차별 의식은 예전보다 낮아졌다. 호주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것도 한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했다는 증거라고 본다.



호주한인복지회 방문



단체 사업 소개 및 질의답변

【 블랙타운 시의회 】

○ 블랙타운 시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위

치이며 시드니 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뉴사우스웨일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다양한 인구와 문화가 있는 다문화 도시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 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 도시현황 : 인구 35만명, 면적 247km², 의원수 15명, 공무원 1,800명

○ 주요질의답변

- 블랙타운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시드니 중심가 지역이 이미 인구 포화상태로 인구가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내 중심지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젊은 인구가 외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블랙타운 인구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이다. 우리는 거주자들을 위한 이미 많은 지역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수영과 레저센터, 수목관리, 도로 및 주차장, 미니버스, 어린이 조기학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향후 추진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지역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블랙타운 시는 스포츠 시설이 많은 도시이다. 블랙타운 국제 스포츠 공원 조성을 계획 중이다. 국제 경기도 치를 수 있는 복합센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물보호소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 매년 1만 마리가 넘는 동물을 센터에서 보호, 재입양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질 것이며 시드니 대학교와 협력하여 최대 3개의 수술실을 보유한 현대적 동물병원을 센터에 포함할 계획이다.

- 블랙타운은 시드니 중심지에서부터 외곽지역에 속하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시드니 주요 관광지역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공공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블랙타운 예산 전체의 4분의 1이상이 사회 공공 기반 시설 제공에 사용되고 있다. 기존 도로를 통행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를 하고 신규 보도를 건설 하는 등 도시 전체의 기능을 생각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위릭레인이라고 하는 블랙타운 중심 업무 지구 내 비즈니스 및 상업 중심이 되는 다층 건축물이 세워질 것이다. 이러한 블랙타운 중심지 개발로 꾸준히 인구가 머물게 되면 도시 경제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블랙타운 시의회 방문



시 정책 소개 및 질의답변

【 시드니올림픽파크 】

-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시드니 홈부쉬 지역에 조성된 스포츠 경기시설을 포함한 공원이다.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 경기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른 뒤 이 지역은 올림픽 개발 이후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꾸준히 개발되었다. 시드니 도시 철도와 올림픽 공원 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올림픽 공원역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여 지어진 경기장 단지를 비롯한 공원 등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각종 친환경 생물 등이 서식하는 친환경적 공간이 조성되었다. 이렇듯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홈부쉬 지역은 시드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올림픽 공원 조성되어 새로운 생활권으로 탈바꿈하였다.

○ 주요질의답변

- 환경을림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에너지 효율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 ☞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참가 선수단 전원이 한 곳에 머물게 되는 선수촌은 태양열 주택으로 건설됐다. 올림픽 파크안에 30M 높이의 태양광 발전탑 19개를 설치, 방에도 대낮처럼 주위를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며, 실내에서 오염된 공기는 천정에 설치한 태양열판으로 가열해 저절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홈부쉬 지역 전체가 지구 남반구에서 가장 큰 태양열 활용 지역이 되었다.
- 태양발전 이외에 친환경적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 당시 시드니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건축이 예정된 곳에 호주의 토종 개구리인 황금종 개구리가 발견되자 계획을 변

경하였다. 이에 따른 예산 초과지출과 올림픽 타운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는 부담이 있었지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테마파크를 건설하기 위해 수십년동안 쓰레기를 매립하던 구덩이에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파낸 흙을 쌓아 동산을 만들고 이 동산에 나무들을 옮겨 심고 근처에서 채취한 풀씨를 뿌려 텃새와 동물의 낙원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물 순환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 올림픽파크 내에 물 정수 시스템이 있다. 정수된 물은 나무에 물을 주거나 화장실에서 활용된다.



물 정화 시설 견학 및 담당자 설명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 견학

【 로토루아 노인복지시설 】

○ 데이브레이크 시니어 데이케어는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주간 보호 시설이다. 노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보살핌 및 장기 독립 생활을

지원한다. 시설에 온 노인들은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이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개인간호, 운동, 활동프로그램,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 등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주요질의답변

- 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 우리 시설은 데이케어 시설로 이용자들이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이용하는 분들은 차량 픽업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 오전에 오셔서 종일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으며 프로그램은 항상 하루단위로 계획이 세워져있다.

-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이 많은데 운영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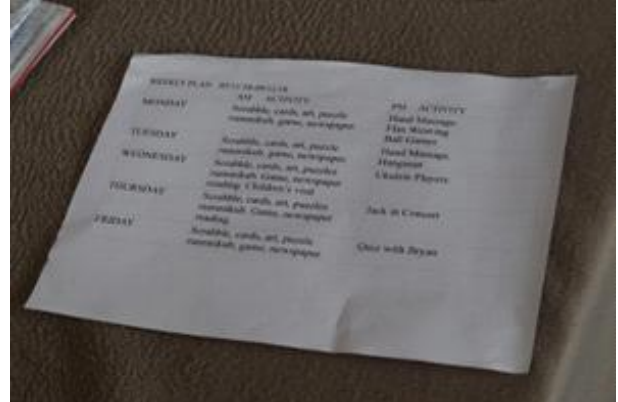
☞ 운영비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스태프는 운영비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전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한다.

- 의료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 시설에 간호사가 항상 근무를 한다. 시설 내에 사고시 1차적으로 간호사인 직원이 대처를 하고 그후에는 근처에 병원이 있어 즉각 조치가 가능하며 노인들 대부분이 개인 주치의가 있다. 개인 질병에 대한 관리는 가정방문을 하는 개인 주치의를 통해서 관리 받는다.



데이브레이크 담당자 설명 및 질의답변



데이브레이크 양로원 주간 프로그램

【 로토루아시청 】

- 로토루아시는 59,546ha의 조림지와 14개의 국립 공원, 18개의 해양 보존 지구가 있고 화산지대의 영향으로 관광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이다. 꾸준한 관광객 유지를 위해 시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캠페인을 내걸고 시민과 협력하여 각 분야 요소에 적합한 자연 환경 보호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 도시현황 : 인구 5만4천명, 면적 2,078km², 의원수 11명, 공무원 130명

○ 주요질의답변

- 관광도시로 유명한데 관광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우리 시는 주 산업이 관광업과 낙농업으로 관광객의 유입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지역의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로토루아가 계속해서 관광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부분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관광지에 대한 환경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여

관광지를 원래모습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환경보호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를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환경보호 정책에 잘되고 있는지 감시체계도 운영 중이다. 각 업체나 주민들은 시에서 발표한 환경보호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곳곳의 장소에서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로토루아 시청 방문



시의원 시 주요정책 소개 및 질의답변

2. 현장 시찰

【 호주국립해양박물관 】

○ 호주 국립 해양 박물관은 호주의 바다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1991년 개관하였다. 실제 크기의 헬리콥터, 배 등이 전시될 정도로 박물관의 크기가 매우 크다. 주 박물관의 전시

관은 항해, 해안, 해군 및 문화 등을 테마로 전시하고 있다. 해양박물관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실제로 사용했던 해군 군함, 잠수함 등이 전시되어 있고 승선해볼 수 있다.

- 달링 하버에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은 규모와 외관상으로 달링 하버에서 눈길을 끄는 장소였고 내용적으로도 호주의 해양문화와 역사를 전달하는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달링 하버의 주변 명소와 연계하여 이 지역을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관광 명소로 만들고 있다. 또한 페리, 경전철 등 교통편도 편리하여 접근이 용이하다.



호주국립해양박물관




호주국립해양박물관

【 윈센트럴파크 】

- 윈센트럴 파크는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젝트의 하나로 계획 및 건립된 친환경 건축물이며 2013년도에 완공되었다. 이 건축물은 2층부터 33층까지 각층 테라스에 수평의 식물정원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각 세대에서 관리하는 개별적 정원

이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적 정원과는 달리, 모두가 공유하여 관리하는 공공적 정원도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일부 외벽에 형성되어 있는 수직의 직사각형 모듈정원이다. 도시의 건축물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원센트럴 파크	원센트럴 파크

【 동부해안지역 】

- 왓슨스베이 : 시드니의 오래된 어촌으로 마을이었으나 1860년대 개발이 시작되어 주거지, 휴양지, 해변, 공원 등이 개발되었고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및 해안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다. 바다와 시드니가 한눈에 보이는 경치로 인해 주거지로서 인기가 많으며 근교로 나들이를 떠날 때 즐겨 찾는 장소이다.
- 본다이 비치 : 시드니의 해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치로 항상 사람이 붐빈다. 이 비치는 파도가 높아 서핑의 장소로 유명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비치 주변에 머물면서 서핑을 배우기도 한다. 젊은이들을 비롯한 방문자가 늘 많아보니 주변에는 숙소와 카페, 식당 등 상업시설이 발달했다.

- 갯 공원 : 해안절벽의 틈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 갯팍 (GAP PARK)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으며 끝없이 이어진 해안절벽을 계속 바라볼 수 있다. 경치는 좋으나 자살장소로도 유명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 볼 수 있다. 절벽을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해안산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본다이비치



갯 공원

【 로토루아 폐수처리장 】

- 로토루아 지역에서 사용된 물은 배수구와 하수관거를 통해 로토루아 폐수처리장으로 모아 처리된다. 폐수처리장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공법을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양의 질소와 인을 제거한다. 최종 처리된 방류수는 질소와 인의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하여 와카레와레와 숲에 사용되고 토양을 통과한 후 호수로 유입된다. 로토루아에서 사용한 물은 로토루아 호수로 흘러들어가고 호수는 수로를 따라 바다로 연결된다. 폐수처리장은 자연의 과정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

【 로토루아 쓰레기처리장 】

- 쓰레기처리시설인 Waste Management는 로토루아 시의 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폐기물 최소화를 목표로 각 가정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지급하고 일반쓰레기는 주 1회, 재활용품은 2주에 1회 간격으로 수거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류를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한다.

	
쓰레기 처리 업체 Waste Management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분류장

II 시 사 점

1 선진 복지 실현 기반 조성

선진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 제도 및 예산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개선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가. 높은세금에 대한 인식

-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복지국가로 유명한 호주, 뉴질랜드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40%까지 징수, 본인 수익에 비례하여 세금을 걷고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평등 유지 노력

나. 호주의 복지계층별 지원내용

- 호주는 1970년대 다문화주의 정책을 국가적 도입 실시 후 현재까지 208개국의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가 되었고 다문화 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한 대표 국가
-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혜택 제공
- 노인 : 67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노령 연금
- 아동 : 양육 보조비 지원,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며, 대학 과정도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아 졸업하고 취업 후 국가 상환
- 실직자 : 구직활동자에게는 실업수당 제공
- 장애인 : 중·경증 및 소득 구분없이 월 150만원정도의 장애수당 지급하며 이동수당 주거수당 실업수당 별도 지원

다. 다문화국가로서의 특징

- 호주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것을 목표로 정부차원에서 교육부분에서도 사회통합, 관용,

언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 실시

-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학교를 개혁하는 공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
- 언어는 중요한 부분으로 모국어 교육과 사회에 적응하고 조화를 위한 다수의 언어인 영어 교육 두가지 측면

라. 뉴질랜드의 의료시스템

- 뉴질랜드에서는 반드시 가정의에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가정의가 가장 먼저 진료 함. 가정의 판단시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에게 연결 가능함. 가정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가정의 의뢰서를 통해 필요할시에는 전문의 또는 종합병원에서 보다 빠른 의료서비스 가능

마. 시사점

-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위해선 막대한 소요 예산이 필요 ⇒ 호주와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은 많은 세금 확보로 가능한 것으로 향후 수당 지원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소요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선진 복지 실현을 위한 구성원의 인식 제고
⇒ 국가의 많은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세금 부담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진정한 복지는 사회구성원간의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합의와 이해가 필요함을 인지
- 한국도 다문화국가에 됨에 따라 공교육부터 다문화 관련 교육 도입 등 다문화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컨텐츠 개발 및 접근 용이한 인프라 조성, 편의시설 확충으로 강동권 복합 관광문화도시 개발

가. 복합시설의 시너지 효과

- 호주국립해양박물관은 달링하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엔 명소와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 조성
- 특별한 하나의 관광 지역을 형성하여 사람이 꾸준히 모여드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주의 해양문화와 역사 홍보 기여

나. 편의시설이 확충된 관광개발

- 시드니 시내에서 가까운 동부해안을 따라 주변 상업시설 발달함.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과 카페, 잡화점 등 운영
- 특히 본다이비치 주변은 레스토랑과 쇼핑몰 등이 함께 생겨나 피크닉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시드니 근교 나들이 주요 지역으로 발달하였고 특히 싸고 맛있는 맛집이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이 더욱 찾는 지역으로 발전

다. 시사점

- 강동 지역에서 방문객이 머물며 필요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확보 필요 ⇒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휴양, 상업시설 등 복합시설 확충으로 편의시설을 중요시하는 젊은 층의 유입 기대
- 북구만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안 체험 개발 ⇒ 근교에는 없는 해양레포츠 등 체험형 관광 시설 개발을 통한 방문객 유입으로 관광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물 보급 및 환경 보호 노력을 통한 친환경도시 복구 이미지 제고 필요

가. 친환경 건축물의 도시에서의 역할

- 원센트럴파크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외벽에 수직 정원이 있으며 시드니 도심 속 한가운데 위치 ⇒ 독특한 외형으로 외부인의 눈길을 사로잡아 도시 랜드마크의 역할,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 에너지 활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나.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주거지역 환경 개선

- 시드니올림픽파크 내에 물 정화, 태양열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로 공원 내의 시설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로 인해 형성된 주변 주거지역의 환경에도 기여 ⇒ 해당 지역은 올림픽파크 건설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었으나 올림픽파크 조성 이후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및 활용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주거지역이 되었음

다.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자연보호주의 개발

- 올림픽 파크 건설 당시 계획 부지에 토종 개구리의 발견으로 건설 계획 변경 ⇒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올림픽 타운 전체 구도가 바뀌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환경보호 앞장 섬

라. 시사점

- 공공 건축물 건립시 친환경 건축물의 형태 적극 도입 ⇒ 친환경 에너지 보급화 기여 및 에너지 활용 사례 제시
- 지역 개발시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환경보호 의식 필요

IV

개인별 보고서

작성자	북구의회 의장 이주언
제 목	성공적인 강동 해양관광 개발을 위한 제안
<p>○ 사전준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북구가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많지만 관광 인지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북구 지역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산업 육성, 홍보에 대한 계획과제 해소를 위해 현장시찰을 준비함. ▷사전준비회의 : 8월28일(화) 11:00/▷사전준비교육 : 10월22일(월) 10:00~17:30 <p>○ 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자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해양산업 선진지역을 직접 시찰,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양관광산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도출 - 해양관광개발 트렌드를 파악하여 관내 해양관광과 접목시킨 성공적 해양관광정책 구현 - 관광의 일상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삶과 문화를 체험. 현지인과의 교감을 즐기려는 여행 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지역의 명소 중심에서 지역의 거리, 마을, 시장 등 일상 생활공간의 관광 개발 추구 - 북구 관내 항구주변 판매장, 공연장 등을 갖춘 위터프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수집, 벤치마킹 <p>○ 호주 해양산업의 발전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는 일찍부터 해양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관리를 위한 '호주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호주는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을 재개발하고, 연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규모 개발 산업을 진행했다. 	

- 요트를 비롯한 레저 선박 등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숙박, 카페, 여가 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는 호주 골드코스트, 옛 항구에 국립해양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입지시켜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킨 호주 달링하버가 그 예이다.
- 호주의 해양 산업은 관련 산업을 해양 관광과 연계시켜 복합적인 형태와 특화된 형태로 활성화 한 노력이 눈에 띄었다. 물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해양산업 개발 의지가 투영된 결과임은 당연한 것으로 지역의 특성을 정책화 하고 이를 실현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차원의 의지와 해당 지방정부의 강한 추진력이라고 본다.

○ 국립해양박물관

- 달링하버에 위치. 호주의 바다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10층 크기의 요트와 실제 크기의 헬리콥터, 배 등이 전시될 정도로 대규모의 박물관이다.



- 시드니에는 박물관이 많아서 박물관 PASS라는 티켓을 사면 전체 박물관 관람이 가능하다. 박물관뿐 아니라 입장권이 필요한 지역 관광지를 연계해서 통합입장



권을 활용하면 예정했던 코스외에 더 많은 홍보와 관광의익 실현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순천, 군산등에서 관광지통합입장권을 활용 중인데, 시와 연계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 왓슨스베이

- 왓슨스 베이는 시드니에서 비교적 조용한 주거지를 끼고 있는 해변 가운데 하나로 특히 비치 앞에 공원이 있어서 바다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왓슨스베이의 앞에도 식당과 카페가 아주 많아 관광객과 현지인이 애용한다.

○ 왓슨스베이

- 해수를 이용한 수영장, 작고 특색있는 도서관을 갖춘 해변, 깔끔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이정표, 작은 것 하나도 전통과 규모, 오래된 어촌마을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만들어 나간 정성이 보였으며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 이는 세계관광기구(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가 정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범주를 잘 지킨 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 우리지역이 가진 천혜의 선물인 해양자원과 지역의 특색을 관광산업과 연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이 바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지속성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인데 왓슨스베이는 아주 좋은 보기가 되어 주었다.



○ 본다이비치

- 시드니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밭이 펼쳐져 있어 현지인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 서퍼들이 선호하는 해변인 본다이비치에서 특히 눈여겨 본 것은 본다이비치가 서퍼와 수영을 위한 특정관광지로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본다이 비치의 메인 거리는 해변과 인접한 캠벨 퍼레이드로, 레스토랑과 카페, 잡화점 외에 서핑용품을 파는 숍들이 모여 있다. 프렌치 식당, 이탈리아 식당 등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싸고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 최근에는 식도락가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 레스토랑이나 쇼핑몰 등이 함께 발달해 있다는 것은 서핑과 수영을 즐기지 않는 일반 관광객도 찾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쇼핑몰 중에는 옥스퍼드 몰과 본다이 정크션 플라자의 규모가 크며 다양한 매장을 갖추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본다이 마켓이라는 벼룩시장이 열리는데, 규모는 작지만 앤티크 소품 등 흥미로운 물건이 많다. 날씨와 휴가시즌, 특정레포츠와 취미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즐길거리를 제공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관광정책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이 명소중심에서 거리중심, 생활권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실익창출로 연결되는 핵심이며 본다이비치는 이의 아주 좋은 실사례 중 하나였다.

○ 로토루아

- 뉴질랜드 로토루아(Rotorua) 시청을 찾아 해양관광 등의 자료수집 및 여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로토루아는 14개의 공원과 18개의 해양보존지구를 보유한 뉴질랜드 최고의 해양관광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 로토루아 시의회 Mark Gould JP 의원을 통해 로토루아가 최고의 관광도시로 그에 맞는 다양한 행사와 자료,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등을 제시받는 등 벤치마킹의 시간을 가진 것이 큰 수확이었다. 특히, 영국왕실 해리왕자의 뉴질랜드 로토루아 방문을 주제로 시와 언론에서 대서특필 하는 등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세계인의 이목을 뉴질랜드 로토루아로 집중시키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곧바로 상품개발을 해내는 순발력 있는 관광아이디어가 인상깊었다.
- 뉴질랜드의 경관과 자연환경, 관광 프로그램 등을 누리고자 매년 250만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로토루아시의 현실적인 계획과 진지한 노력들이 돋보였다.

○ 시사점

- 마지막으로, 다소 어렵게 구한 로토루아시의 ‘세계적 수준의 해양관광 경험 개발’ 자료집 중에 중장기계획(10년)을 언급하고자 한다.
- “우리에게는 해양관광에 대한 대담한 비전이 존재한다. 땅이 물과 만나는 곳을 충족시키고 향상시키는 목적지를 창조하자. 레크리에이션, 모험 관광 숙박시설, 문화 체험 및 엔터테인먼트 구역 등 개발 될 공간으로 떠오르는 이 계획을 우리 해양을 다른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위와 동등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원을 세계 정상급 해안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도 중요한 요소로 확인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독특한 기회가 제공되는 해안 체험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의 아이디어는 주변 민간 투자의 품질 목표와 일치하는 목적지를 만들고 이것과 함께 관광, 방문자 집중을 용이하게 하여 밤낮으로,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국제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활동, 우리만의 문화적, 사회적 및 환경적 맥락을 인정하고 토지 및 기타 자원과의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덧붙여 문화,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적 및 공공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 굴뚝으로 대표되는 산업도시에 굴뚝없는 청정산업인 관광산업이 앞으로 울산, 특히 북구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핵심이 바다와 인접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북구의 강동권개발이다. 해양복합 관광도시 건설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울산시와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북구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체계적, 전문적관리를 통해 상호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고, 울산 북구가 향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작성자	북구의회 부의장 백현조
제 목	친환경 도시 북구가 되길 바라며
<p>○ 자연친화적 도시 이미지에 기여한 원센트럴 파크는 2013년 세계적인 건축가 장누벨이 여러 건축가들과 함께 참여한 건축물로 높이 117m, 33층 규모로 용도는 복합주거단지이다. 하층부에는 상업시설이 있었고 중상층부가 주거시설이었다. 이 독특한 자연친화적 건물이 대부분 주거시설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연과 삶을 함께하려는 호주 사람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시드니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 외벽 전체가 식물로 뒤덮여 거대한 수직 공원을 보는듯했다. 외벽 뿐만 아니라 2층부터 33층까지 각층 테라스에 수평의 식물정원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각 세대에서 관리하는 개별적인 정원이며 이런 내부와 외부의 정원이라는 특이한 건축 형태로 각 세대 거주자들은 도심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p> <p>○ 환경을림픽의 상징인 시드니 올림픽 파크는 올림픽 준비 당시 쓰레기 매립장을 개조해 올림픽 경기장, 선수촌 등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태양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경기장 앞 대형 가로등에는 대형 태양열 집열판을 하나씩 매달고 있고 선수촌이었던 건물 옥상에도 태양열 집열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을 건립할 때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도입한 일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수영장 풀에서는 관람석 주변에만 에어컨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자연통풍을 통해 쾌적한 내부공간을 유지했다고 한다.</p>	

주경기장에서도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타원형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물은 4곳의 물탱크로 모아 이 물을 그라운드의 잔디를 키우고 식당이나 화장실 등을 청소했다고 한다. 이렇듯 버려지고 쓸모없던 땅을 올림픽을 계기로 친환경을 테마로 새롭고 깔끔하게 바꿨다. 환경 보존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올림픽이 끝난 현재에도 올림픽 파크 주변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과 관련해서 방문한 원센트럴 파크와 시드니올림픽파크는 호주가 환경 친화 국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구는 울산이라는 도시 안에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구와는 차별화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에 관해서 항상 연구하고 개선하려는 호주처럼 북구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가 사용하는 총 에너지 중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30%정도로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고효율 에너지 설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하고 반영해야한다. 공공건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민간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쉬울 것이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자원 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해 도시를 키워나가야 한다. 화석연료 고갈, 지구 온난화 등 위기의식 때문에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에너지 개발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작성자	북구의회 의원 임채오
제 목	재활용선별위탁 선진사례

○ 재활용선별위탁 선진사례(Rotorua lakes council)

- Rotorua lakes council 방문



【로토루아 시청 빗물 재사용 친환경 건축 설명】



【환경보호법에 의한 친환경 도시계획 설명】

- 재활용품 선별위탁 용역



【로토루아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Waste Management】

Waste Management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쓰레기수거와 환경미화 시행 업체이고 27년 넘게 로토루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두 개의 다른 입찰업체와의 입찰경쟁에서 15년 간 로토루아 시청과 입찰계약 했습니다.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일과 분리통

Your red bin will be collected weekly, while your recycling bin and crate will be picked up once a fortnight.



Click on the calendar to check which week your recycling collection is on. You will have either a Week 1 or Week 2 sticker on your wheelie bin which lets you know when to put your yellow and blue crate out.



적색통은 매주 수거됩니다. 재활용통과 크레이트통은 2주에 한번 수거됩니다. 몇 주에 재활용이 수거되는지 달력에 표시하세요. 바퀴달린 통에 첫째주 또는 둘째주로 표기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몇 째 주에 노란색통과 파란색 크레이트를 내놓아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 재활용통(노란색) : 알루미늄캔, 깡통, 종이, 박스, 플라스틱
- ☐ 병류(블루크레이트) : 갈색병, 투명병, 초록병
- ☐ 일반쓰레기(적색) : 가정용 쓰레기(음식물포함)
단, 차량용품, 동물사체, 화약품, 의료폐기물등 제외



We encourage residents to place bins and crates about a half a metre apart and as close to the grass verge of the kerb to make it easier for the collection vehicle to pick them up. Please make sure the lids are closed with the front of the bins facing the road and away from any parked cars.

Note: Please, do not place the bins on the road.

바퀴달린 통과 파란색 크레이트 사이 간격은 최소 50cm 띄우고 연석 안쪽으로 가장 자리에 두면 수거차량이 더 수월하게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덮개는 항상 덮어주시고 수거통이 도로를 향하게 해주시고 주차된 차량과 가까이 두지 마세요. 도로에 수거통을 두면 안됩니다.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 가정

재활용 가능 품목은 깨끗이 씻어서 2주에 1회 실시하는 재활용품 수거 날짜를 확인합니다.

오전 7시30분에 문전수거할 수 있도록 집 앞 인도 쪽에 통을 나란히 내놓습니다.

□ 수거차량

블루크레이트에 병류가 깨지지 않도록 수거합니다.

(울산 북구의 경우 병류가 깨지지 않게 잘 수거가 되는 반면 남구, 동구, 중구는 암롤방식차량이 수거하기 때문에 재활용가능한 품목들이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 수거 실적은 수거차량에 부착된 전자기기 모니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선별장과 쓰레기 매립장

2주에 1회 노란색통에서 수거해온 재활용품은 선별장으로 가져갑니다.

압착롤링기계로 재활용품의 부피를 줄입니다.

병류 재활용품은 색깔별로 분류하여 오클랜드로 보내져서 재활용됩니다.

매주 1회 수거되는 적색통 일반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보내져서 처리됩니다.



【병류 색깔별 분류】



【compactor machine 처리】

- Waste Management의 현안문제

쓰레기매립지 선정문제로 Waste Management와 시의회가 함께 타당성 검토와 업무연찬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량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매립지공간을 더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간으로 볼 때 환경보호를 위해 더 엄격해지는 자원규제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수요를 검토하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매립지의 재정자립도를 평가해서 자립가능하다면 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수입 감소

▷ 건강과 안전문제

▷ 자본 투자 문제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자립운영을 위해)

▷ 환경유해성 모니터링 비용

- 선진사례에서 북구의 벤치마킹

로토루아 시는 시유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매년 1억3천만원정도의 로얄티를 위탁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쓰레기매립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 수익금은 운영업체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토루아 시는 운영위탁업체가 수거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매 3년 마다 랜덤으로 검사해서 어떤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지역에 어떤 환경미화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지 분석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 기간중 뉴질랜드 로토루아의 쓰레기 선별장을 방문하여 선진사례를 연구한 결과 북구 재활용품 선별위탁 용역 과업지시서를 북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선진사례에 맞도록 입찰조건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할 때, 뉴질랜드 로토루아 Council의 관리감독역할과 위탁체인 Waste Management의 재활용품 선별 과정을 알아보고 북구청도 쓰레기는 줄이고 예산은 절감하는 위탁운영 노하우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 북구가 재활용품 자체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탁자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별한 재활용품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압축·감용·파쇄 또는 분쇄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시장가격에 따라 당월 말까지 처분하고 판매금액은 익월말까지 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라는 입찰사항은 아래 북구 재활용 선별장 수익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수익감소를 초래합니다. 재활용위탁업체가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하여 연매출 최대 2억5천만원(2013년 기준) 최소 1억8천만원(2015년 기준)을 북구청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2017년 기준 3천100만원정도 입금되었습니다. 실적이 터무니 없이 저조한 재활용품 선별 위탁업체에 구예산으로 2억5천만원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금액 (단위: 천원)	251,575	180,901 (A업체)	183,455 (A업체)	44,161 (B업체)	31,452 (B업체)	21,788 (B업체)

따라서, 로토루아 시의 위탁조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100% 재활용품 선별위탁 용역으로 넘긴 상황에서는

“수탁자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별한 재활용품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압축·감용·파쇄 또는 분쇄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시장가격에 따라 처분하고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품 선별·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익월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여 용역입찰공고하면 매년 1억원이상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2017년 말 기준으로, 남구 35.6%, 중구 42.3%, 북구 30.3%, 울주군 26.6%의 종말품이 발생했습니다. 즉, 북구는 타구에 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북구의회 의원 박상복
제 목	체험형 관광 콘텐츠 발굴로 강동 브랜드 정립
<p>이번 연수를 통해 강동권 해양관광 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p> <p>○ 강동 지역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오프로드 체험장’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해안과 높은 파도를 가진 ‘서핑의 명소, 본다이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핑 레슨 프로그램 운영 ② 시내와 가까운 위치, 넓고 쾌적한 주차장 등 <p>▶ 강동 해안과 산악을 이용한 오프로드 체험장 추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V, 4륜, 바이크 등 드라이빙 스쿨 운영, 액티비티 제공 - 급성장하는 튜닝사업의 ‘악의모드 테스트장’ 운영으로 중소기업 부품 신뢰성 검증 및 해외시장 개척 가능 - 지역 특성상 완성차, 부품사의 후원 대회 개최를 통한 강동 브랜드 위상 제고 - 매니아층의 충성 고객 확보 용이 및 주변 증대 가능 <p>☞ 산업기반형 관광콘텐츠 개발로 활동적인 강동 이미지 구축</p> <p>*現 ‘불편하다’ ‘냄새난다’ ‘단조롭다’ 등 강동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존재</p>	

○ 활력 넘치는 강동을 위해 ‘잘 정비된 인프라 조성’ 필요

- 본다이 비치는 타일을 이용한 벽화 등으로 친숙한 이미지



(참고) 우가어촌마을 체험장 해안벽면

- 관광객의 해변진입 방법의 재미부여 필요



그물다리를 이용한 이동



암벽등반을 형태



미끄럼틀 이용

-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를 배려한 경관길 조성
신규설치 예정인 해안길 및 해변진입로 경사로 적용

○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형상화 필요

- 주민 합의를 통한 건물, 조형물, 공연 등 지역 특화 스토리 발굴

○ 해양 레포츠 편리를 도모하는 편의시설인 ‘마리나’ 확충

- 소득 증대 및 유니크한 취미생활을 수요를 위한 요트, 요트보트 등의 계류시설 확충

작성자	북구의회 의원 이정민
제 목	호주의 사회보장체계
<p>I. 들어가며</p> <p>호주는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갖춰진 사회보장제도 때문이다. 호주의 한국이민자들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호주로의 이민을 고려했다고 말한다. 특히 의료정책은 한국이민자들에게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p> <p>이번 연수는 호주의 복지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 글은 호주한인복지회의 설명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추후 국내 논문 등을 참고했다.</p> <p>II. 호주의 사회보장체계</p> <p>호주의 사회복지 발달은 1901년 연방정부 수립 이후 연방 차원의 복지제도와 노동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1909년 노령연금을 시작으로 장애연금이 도입됐고, 1940년대 들어서 아동수당과 유족연금제도 등이 도입됐다.</p> <p>-수당과 연금</p> <p>호주의 사회보장체계는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로 크게 수당과 연금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수당은 일시적인 보호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단기적 급여를 말하고 연금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계층에게 주어진다.</p> <p>현재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 종류를 보면 가족 및 아동, 보육, 노인, 질병 및 장애인, 학생 및 청소년, 노동시장 등의 범주로 구분돼 있다. 우리나라에 없는 사회보장제도도 눈에 띈다. 고아수당, 병가수당, 원주민 학업 수당, 사별수당 등 생소한 수당도 있다.</p>	

-노인 대상 사회보장체계

전세계가 고령화사회로 이어지면서 노인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령연금은 호주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이다. 노령연금과 함께 소득에 연계된 강제기업연금도 퇴직 후 노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한다. 55~65세까지 노령연금 수령 이전까지는 한인복지회와 같은 정부 인정 기관에서 주 15시간 봉사하면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는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각종 모바일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받는다.

-아동지원제도

호주는 공인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가구에 보육비를 지원한다. 종일 보육, 가족 보육, 방과후 보육 등 인증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 일반 저소득 가구의 보육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급여와 가구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육환급급여가 있다.

III. 결론

호주에서의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호주의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보편성이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530만명 이상이 복지수당을 받고 있으며 257만명 이상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호주 국민 2,460만명 중에서 700만명 이상이 복지 혜택 대상자로 알려져 있다. 보편적 복지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호주한인회는 1967년 만들어져 이민정착 서비스, 미취학 한국아동의 취학 준비교육, 어르신 데이케어 운영, 동포들을 위한 각종 정보세미나 개최 등을 하고 있다.

<참고>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정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자	북구의회 의원 이진복
제 목	다문화 국가 호주를 다녀와서
<p>1. 호주한인복지회(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p> <p>호주한인복지회는 비영리단체로 운영은 호주 정부지원과 한인단체의 기부금으로 하고 있으며, 한인 교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서비스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등을 제공한다.</p> <p>이민정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복지선진국답게 노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모든 연령층의 케어가 전문적으로 훈련된 복지사들의 손길아래 그룹과 개인맞춤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p> <p>특히, 자원봉사제도가 잘 정착된 나라답게(전체인구의 40%이상이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고 한 가구당 1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 체계화 된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그에 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인드가 인상 깊었다.</p> <p>한인복지회 입구에 들어서면 이민가정을 위한 한글로 된 여러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으며 그중 한 책자의 내용을 보면 호주 내 한인들이 B형 간염 발병률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어있어 B형 간염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등의 안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p> <p>호주는 현재 245개국 이상의 출신자들이 215종이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가 다른 나라와 달리 다문화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에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에서는 소수민족과 이민자를 위한 커뮤니티관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문화주의 법률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각 개인의 평등한 권한을 보장하여 다문화주의 원칙을 법률로 제정, 다양한 종교, 문화를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다.</p>	

이 법률은 모든 지역주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구나 활용,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인 근거로 제시해 주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다문화정책 실행에 있어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강조한다.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문화간의 화합과 통합을 잘 이끌어가는 도시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지방정부의 다문화 교육, 종교,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에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보다 풍요로운 복지사회는 다름 아닌 정부로부터 제도적 장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례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연령과 생활모습을 면밀히 관찰하여 보완, 제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 : 호주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주요 내용**

2003년에 발표된 다문화호주 : 다양성으로 통합 Multicultural Australia:United in Diversity 에 잘 나타나 있으며, 다문화 정책의 네 가지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적 의무(Responsibilities of all) : 모든 호주인들은 호주사회의 기본 구조와 원칙을 지탱하기 위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지니며, 이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에서 다양성이 번창 할 수 있는 토대가 됨.

둘째, 상호존중(Respect for each perso): 법에 근거하여, 호주인들은 자신의 문화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에 상응하여 타인들의 그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음

셋째, 상호 공평성(Fairness for each person) :모든 호주인 들은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며, 사회적 공정성은 인종이나 문화,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출신지등의 배경에 대한 차별 없이 우리가 호주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만듦

넷째, 공동 이익추구(Benefits for all): 모든 호주인 들은 생산적인다양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혜택을 받으며, 중요한 경제적 이익은 인구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므로 다양성은 모든 호주인 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블랙타운 시의회(Blacktown city council)

호주 방문 3일차 공식방문지로 시드니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Blacktown city council을 찾았다. 블랙타운시는 현재 인구 35만명의 도시로서 향후 50만명까지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의회로 들어서면 의원들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다문화 국가답게 의원들도 인도인, 필리핀인, 중국인등 다양한 국가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랙타운 시티는 188개의 민족과 182여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최근, 시드니의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첫 주택 구입자들이 블랙타운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한다.

담당 안내공무원에게 다문화국가로서 범죄 발생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시와 경찰이 연계한 안전확보로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주로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이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비율이 많다. 현재 울산 북구에도 940여명의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가 다문화가정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이민근로자들 또한 거주하고 있어 좀 더 실용적이고 다양한 케어가 가능한 다문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무원연수를 통해 기존의 사회공동체와 언어, 문화 관습이 다른 이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하고, 지역주민으로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돕기 위해 우리 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생각을 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다문화 시대에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가 없는 다문화주의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다문화 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누리지원센터’처럼 다문화 자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차별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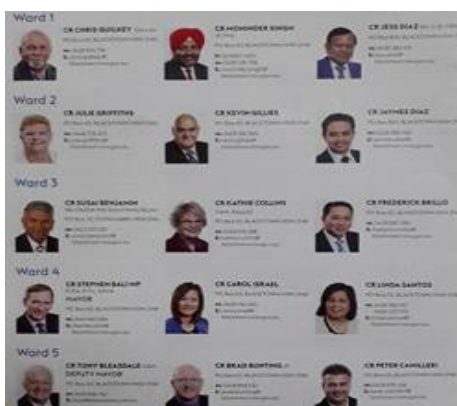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자 등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한 사회나 제도적으로는 다문화 관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자녀들에 대한 정착, 심리교육과 상담, 언어지원등의 보조금지원 확대와 문화적 다양성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호주의 '하모니데이 (Harmony Day)'와 같은 행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지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모니데이

호주정부에서 호주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민족들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1999년부터 날짜를 지정해서 기념하는 행사. UN의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맞춰 3월 21로 지정하였다.



작성자	의회사무과 6급 송진한
제 목	호주·뉴질랜드 연수를 다녀와서
<p>○ 연수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연수 추진에 관한 회의를 거치고 하루동안 사회복지, 해양관광,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번 연수의 주요목적은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강동권 해양관광개발, 노인·다문화 등 다양한 복지문화 기반조성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호주·뉴질랜드의 우수시설 견학 및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p> <p>○ 호주의 첫 방문지는 호주한인복지회였다. 호주한인복지회 회장님으로부터 호주 복지정책과 다문화 지원 정책 관련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p> <p>○ 호주 인구는 2,500만명 정도이고, 해마다 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인은 35,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호주는 230개 이상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1975년 인종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다문화주의 사회이며 모범적인 다문화정책 유지의 국가라고 한다.</p> <p>호주의 복지는 연봉에 따른 공정한 세금 납부, 세금공제 혜택을 통한 국민 기부의식, 투철한 자원봉사정신과 풍부한 자원이 그 바탕이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국가로서 편견을 버리고 법제도 정비나 다문화지원 대책, 교육 등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p>	

- 호주 블랙타운 카운슬은 시드니 주변의 높은 지가상승으로 주변지역이 발전하여 최근 떠오르고 있는 도시로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시설물 및 관광객을 위한 시설물에 힘써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었다. 4년에 한번씩 투표로 15명의 의원들을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 중에서 시장을 뽑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현재 대구 수성구,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 호주 내 도시인 뉴사우스웨스트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다. 카운슬은 정부기관이지만 직접 사업에도 참여하여 일자리를 늘리거나 자산을 늘리는 등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었다.
- 호주 동부해안 지역인 본다이비치는 시드니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었다. 부드러운 모래가 소금보다 더 가늘고 넓은 백사장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지만, 정작 편의시설은 넓은 주차시설과 화장실 등을 제외하고는 의외로 많지 않았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시설은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무인 정산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잡상인이나 파라솔 설치 등은 일절 없었다.
- 뉴질랜드는 인구가 우리나라 부산인구 정도 밖에 안되지만 넓은 목초지가 무한 펼쳐져 있었고, 양이 8천만 두, 소가 2천만 두, 사슴 150만 두, 알파카라는 동물이 30만 두 규모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

- 목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외부 이민자에게는 철저히 허가가 제한되어 있었다.
-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영유아수당, 대학 학자금도 무료, 공부하는 동안 지급되는 학생수당, 사망 시에도 지급되는 장제비, 실업에 따른 실업수당 등 평생 직장이 없더라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나라였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으며, 경쟁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빗으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청년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다.
- 연수를 하면서 “해외연수의 진정한 목적은 가장 익숙한 것 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 이라는 현지 전문가이드의 말이 절실히 마음에 와 닿았다.
-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좁은 면적이지만 성실성과 교육열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 또한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본다.

작성자	의회사무과 6급 황영지
제 목	자연 보존과 개발... 그리고 조화
<p>○ 2018년 공무국외연수를 대비하여 의원들의 관심분야와 우리 구에 접목할 만한 지역의 자료 수집, 의원·직원 역량강화 교육,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 연수주체, 연수국가, 연수기간 등을 정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경험했던 몇 가지를 적고자 한다.</p> <p>○ 먼저 호주는 인류 전체 역사로 볼 때 비교적 신생국에 속하는 국가인 관계로 유럽이나 아시아처럼 천 년이 넘는 문화유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근대에 와서 개발된 국가답게 현대화된 건물과 잘 된 도시계획으로 현대 모습 그대로 관광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p> <p>○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꾸준히 발전한 시드니 동부해안 시드니 동부해안의 왓슨스베이, 갯팍 등은 18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져왔다. 오래된 어촌마을부터 시작해 대부분은 주거지이지만 휴양을 위한 편의시설 및 해안산책로가 마련되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해안절벽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를 통해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었다.</p> <p>○ 호주의 중심지 달링하버에 있는 ‘호주국립해양박물관’ 호주국립해양박물관은 달링하버에 위치하여 호주의 바다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대규모 박물관이었다. 박물관 규모 자체만으로 달링하버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었다.</p>	

달링하버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박물관도 쉽게 갈 수 있어 호주를 홍보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 같았다. 특정 관광 목적이 아닌 복합시설로서의 관광 지역으로서 가꾼 달링하버의 모습은 우리 북구가 접목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 뉴질랜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 세계적인 낙농국가이다. 이 나라의 토지이용률은 54%가 목초지, 28%가 산림, 5%가 경작지이며 우리 역시 이동과정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목초지가 신기했다.

○ 관광도시 로토루아의 ‘자연중심’ 자원 관리

로토루아는 화산지대의 있는 특성으로 일본처럼 온천이 유명한데 류머티즘과 근육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수많은 여행객이 몰리고 있는 곳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못하도록 지방정부에서 통제하여 스파는 한곳에서만 운영한다고 한다. 무분별하게 개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시 정책 전반적으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는 그동안 북구에만 머물러 있던 나의 시야를 넓혀 주고 공무원으로서 우리 북구 발전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람과 살아가는 사회가 불편하지 않게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접목하여 선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정책을 잘 유지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작성자	의회사무과 7급 이가영
제 목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호주의 자세
<p>○ 2000년에 개최한 시드니올림픽은 그때 당시에도 환경 올림픽이라는 별칭이 생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지 이미 18년이 넘었지만 호주의 ‘환경’ 올림픽은 계속 되고 있었다.</p> <p>○ 황금종 개구리가 이끈 환경올림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파크 부지에 시설 건립하는 추진하는 중 당시 멸종 위기였던 황금종 개구리가 발견되어 올림픽위원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존지역으로 선언하였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초과 지출과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는 부담이 있었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런 즉각적인 결정을 했다. 아직도 황금종 개구리는 발견당시보다 많이 번식했고 지금도 전문가들이 번식상태를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 <p>○ 세계 최대의 태양열 타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경기장 앞에 늘어선 대형 가로등은 모두 대형 태양열 집열판을 하나씩 매달고 있다. 시드니 도심열차가 정차하는 올림픽 파크역은 자연채광을 위한 투명지붕을 설치해놓았다. 모두 전력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렇게 태양열 이용을 극대화한 덕분에 홈부시 베이의 올림픽 빌리지가 세계 최대의 ‘태양열 타운’이 되었다. 이는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한다고 한다. 	

○ 쓰레기 위에 건설된 주경기장

- 수십 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하던 구덩이에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파낸 흙을 쌓아 동산을 만들고 이 동산에 나무들을 옮겨 심고 근처에서 채취한 풀씨를 뿌려 텃새와 동물의 낙원으로 만들었다. 혐오지역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친환경적으로 탈바꿈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돋보였다.

○ 신흥주거지 올림픽 빌리지


- 올림픽시설이 들어설 홈부쉬 지역은 소위 ‘버려진 땅’이었다. 하지만 올림픽 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변 주거지역도 조성했다. 올림픽이 끝난 10년후엔 세계최대 환경테마파크 밀레니엄파크가 완공되어 백만그루 넘는 나무가 심어졌다. 올림픽이 끝난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금도 올림픽파크 일대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부상하였다. 환경올림픽 정신으로 멀리내다보고 설계하고 관리해온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 시사점

- 시드니올림픽파크는 건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환경을 생각하며 올림픽 시설 및 주변지역 전체를 관리해오고 있다. 올림픽파크의 다양한 사례만 보더라도 호주는 환경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개발을 했고 현재를 살고있는 이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정책 방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주변 어느때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드니 올림픽의 환경생태보호 정책과 실천을 배워야 할 것이다.

작성자	의회사무과 7급 박현배
제 목	호주와 뉴질랜드의 노인 복지
<p>○ 빠르게 노령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노인을 보살피는 일이 가족의 힘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평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노인복지제도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p> <p>○ 우리가 방문한 데이브레이크 양로원은 시설적인 면에선 규모가 크지 않았다. 북구노인복지관보다는 작았지만 경로당보다는 조금 큰 곳이었다. 이 곳은 우리나라 주간보호시설처럼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시설 소유의 차량으로 매일 픽업 서비스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차를 운전하여 시설에 방문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p> <p>○ 시설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으나 제도적인 면에선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주별로 세분하게 짜여 있었고 간호사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될 수 있었다.</p> <p>○ 노인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각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에 한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시설의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숫자는 많았다. 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다.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의 수가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다.</p>	

- 시설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입주노인들의 취미·오락 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일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계획된 시간표에 맞춰서 방문해서 수업을 한다고 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개인취향에 맞게 즐기고 있었다.
- 그리고 우리나라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노인 개인별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의를 통해 건강체크도 받고 그 내용도 노인 복지 시설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예방의학이 발달한 나라이다. 질병이 생기기전에 철저히 관리해서 예방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 우리나라도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복지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한다. 우리나라에 바로 가정의 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노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인의 삶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고령화 사회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성자	의회사무과 8급 김이원
제 목	보이지 않는 복지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
<p>○ 호주정부, 제빵 과정에서 엽산 및 요오드 의무 첨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여성들의 엽산과 요오드의 결핍은 출산 후 태아로부터 신경관결손(NTDs)에 의한 질병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09년 엽산과 요오드를 제빵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p>○ 신경관결손(NTDs)에 의한 질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에게 이분척추증, 무뇌증, 뇌이탈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킨다. <p>○ 의무첨가 시행 후 호주국민들의 건강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가임기여성(16세-44세)의 일일 엽산 섭취량이 102μg에서 247μg으로 142% 증가하였고 일일 요오드 섭취량 역시 98μg에서 149μg으로 52% 증가하였다. - 신경관결손(NTDs)에 의한 발병이 심했던 호주 원주민 여성들의 발병률은 74% 격감하였고 토레스 스트레이트 섬 여성들의 발병률도 55% 감소하였다. 	

○ 시사점

- 호주는 모든 제빵과정에서 엽산과 요오드 외 필수영양소가 의무적으로 첨가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 덕분에 호주의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식사를 할 때마다 건강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련성은 밀접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건강 증진을 이끌어낸 대표적 복지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홍보를 통한 보이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호주의 성공사례처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실질적 복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생활이 상당 부분 서구화된 만큼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제빵 과정에서 필수영양소를 포함시킨다면 국민 혹은 주민들의 건강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